

광주시, 시민 체감형 아동친화 정책 강화

전국 첫 ‘손자녀돌보미’ 시행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도
올해 영유아 발달컨설팅 도입
어린이 무상교통 G-패스 호응

광주시가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체감형 아동친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지원해 아동의 정서 안정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손자녀돌보미’와 학부모의 유연근무를 지원하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소아과 오픈런 등을 막고 아이들이 적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휴일 소아 진료 확대하는 ‘공공심아어린이병원’을 확충했다.

남·북·광산구에 달빛어린이병원 1-3호를 차례로 지정해 소아 의료 공백 최소화에도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눈에 띈다. 소상공인 아동양육자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으로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60만원을, 여성 1인 자영업자는 대체인력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육아포인트 정책 ‘삼삼오오 이웃돌봄’ ▲다양한 출산·육아용품 기부와 나눔으로 순환하는 ‘출산남



더위 피해 쿨링포그 아래로...

폭염이 맹위를 떨친 10일 오후 광주 북구 우산동 우산근린공원에서 시민들이 쿨링포그 아래서 물 마시며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매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나눔가게’ 등 공동체 기반 돌봄 환경 조성을 통해 육아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결식 우려 아동의 보다 나은 식생활을 위해 급식 단가를 9천원에서 9천500원으로 인상했다.

가정위탁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45만원 인상했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 컨설팅’을 올해 새롭게 도입해 성

장발달이 느리거나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어린이 무상교통 시대를 연 ‘광주형 G-패스’는 아동친화 정책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G-패스는 아이들의 대중교통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6-12세 어린이는 전액 무료, 13-18세 청소년 50% 할인된다.

광주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교통카드에 자동 적용되며 버스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는 광역시 중 처음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은 만큼 ‘아동친화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아동친화정책 관련 정보는 ‘광주 아이키움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수희 기자

市교육청, 늘봄학교 안전한 귀갓길 지원

본량초 ‘키즈 스테이션’ 개소식

봉주·하남·평동초 등 4곳에 설치

광주시교육청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귀갓길 지원을 위해 ‘키즈 스테이션’을 시범 운영한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본량초등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키즈 스테이션(아이맞이방)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 키즈 스테이션은 시교육청이 국민신문고에 제안된 ‘학생 및 학부모의 안전한 대기장소 제공’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 보호자 또는 인계 차량 등을 기다리는 동안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본량초를 비롯해 봉주초, 하남초, 평동초 등 4개 학교에 설치했다.

봉주초, 하남초, 평동초는 올해 상반기 설치 완료돼 운영하고 있으며, 본량초는 이날 개



소식을 시작으로 운영에 돌입했다.

본량초 키즈 스테이션에는 냉·난방 시설이 설치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자를 기다릴 수 있으며, 배움터지킴이와 자원봉사자 등이 연계해 안전하게 인계한다. 또 돌봄교실로 연결되는 인터폰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봉주초 학부모 이순애씨는 “폭염특보가 발효

된 날에는 아이가 혼자 뜨거운 밖에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키즈 스테이션이 조성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이와 동선이 엇갈리지 않아 조금 늦어도 안심된다”고 말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국민 제안도 놓치지 않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키즈 스테이션 등 학부모와 학생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늘봄 학교 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다이 기자

광주 152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올해도 여름방학 중식 무상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올해도 여름방학 기간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중식을 무상 지원한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부모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학 중 돌봄교실 무상 중식 제공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올해 2년째를 맞았다.

대상은 광주 지역 152개 초등학교에서 방학 중 오후 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업체를 공모, 심사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위탁도시락 납품업체를(P.O.O.L)을 구성해 학교에 제공했다.

각 학교는 납품업체를 활용해 위탁도시락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개별 여건에 따라 납품업체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다. /김다이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7 해질 19:49 🌙달돋이 20:30 달짐 05:17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24/35	장성	맑음	22/35
목포	구름조금	24/33	보성	맑음	20/32
여수	맑음	23/32	함평	구름조금	22/35
나주	맑음	22/35	순천	맑음	23/33
완도	맑음	24/33	영광	구름조금	22/34
구례	맑음	21/34	진도	맑음	22/32
강진	맑음	23/33	흑산도	맑음	23/29
해남	맑음	22/33	고흥	맑음	23/33
광양	맑음	23/32	담양	맑음	22/35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2.0	0.5-2.0
남해 앞바다(북)	1.0-2.0	1.0-2.0
남해 앞바다(남)	1.5-3.5	1.5-3.5
남해 앞바다(동)	1.0-2.0	1.0-2.0
남해 앞바다(서)	1.5-3.5	1.5-3.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2:42	08:04	09:12	03:31	09:52	04:37
	14:24	19:48	22:00	15:12	22:43	16:06

●생활정보지수

내들이 90

세 차 80

더위 조심하세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70

운동 60

야외건조 좋아요 실내운동 즐겨요

●주간 날씨

12일(토)	13일(일)	14일(월)
(23/34) 구름조금	(24/34) 맑음	(23/34) 구름조금
15일(화)	16일(수)	17일(목)
(23/34) 구름조금	(24/33) 구름많음	(25/33) 구름맑음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